

설레는 봄 공연으로 맞이해

성큼 다가온 봄, 지역 곳곳에서 새봄의 설렘과 따스함을 담은 공연이 펼쳐진다. 다양한 공연을 보며 봄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오페라단은 오는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원로예술인과 함께하는 '신춘(新春) 한국가곡의 향기' 공연을 펼친다.

이날 공연은 지난 1982년 출발한 광주오페라단 창단의 창단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순회음악회로 보성, 순천에 이은 세번째 무대다. 오는 22일에는 광양에서 공연한다.

김승일 '당신의 무덤가에', 윤이상 '고풍 의상', 신동민 '서울로 간다는 소', 강창성 '섬진강', 한만섭 '반딧불', 김효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을 들려준다. 또 김정수 '님 그리는 마음', 최영섭 '망향', 조두남 '새타령', 현재명 '오라' 등도 부른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임현진·김선희·구성희·길예령, 바리톤 김남경·방대진, 테너 이상화·김백호·박재욱, 메조소프라노 김사라·강양은, 베이스 임해철 등이 오른다. 피아노는 나원진·김한나가 맡았다.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062-412-2524.

제146회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146회 '새봄과 사랑, 희망을 노래하다' 공연이 오는 18일 오후 7시 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제목처럼 따스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함께 부르며 사랑과 희망을 선사하는 시간이다.

추억의 노래로 흥난파의 '봄 처녀', 현재명의 '나를 깨는 처녀'를 다함께 부른다. 이어 김동진 '봄이 오면', '진달래꽃', 권기현 '그대 이름 바람에 흩날리네', 윤교생 '그대의 고운 노래는', 신동수 '산아', 김애경 '작은 연가' 등을 회원 연주로 들려준다.

정다운 노래로는 이흥렬 '봄이 오면'과 서동석



광주시립합창단 무대에 오르는 재즈 밴드 '리디안팩토리'

광주오페라단 창단 40주년 순회음악회, 17일 광주·22일 광양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8일 북구청소년수련관 24일 광주시립합창단 연주회...재즈밴드 '리디안팩토리' 협연

'강이 풀리면'을 선사하며 회원들은 또 윤학준 '잔향', 변훈 '떠나가는 배', 이안삼 '나지막한 소리로', 임금수 '아득히 먼 날 만 곳에', 이수인 '내 맘의 강물'도 연주한다. 마지막으로 김규현의 '남촌'과 정애련의 '진달래'를 부르며 마무리한다.

이날 공연에는 첼로 연주자 남신이 특별출연하며 소프라노 김영미·김종례·정숙남·고재경·정인숙, 메조소프라노 조정숙·박원자, 바리톤 이길호·임동운, 테너 김종석, 박상휘 등이 출연한다. 무료 관람. 문의 010-2694-4592.

광주시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 '봄이 오면'을 준비했다. 2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이날 공연은 새봄의 싱그러움 감성들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묶어낸 시간으로 봄소식, 봄소풍, 봄생각, 봄기운, 봄 설렘, 봄 기지개 등 봄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들려준다. 이날 무대에는 실력과 뮤지션들로 구성된 재즈밴드 리디안팩토리가 울라 라이브 연주로 함께한다.

공연은 '봄이 오면', '아름다운 소작', '개구리 소리'로 시작한다. 이어 '춤 추며', '우리는 한목소리', '그대를 믿어요', '당신은 나의 전부', '지나가리라', '치코스 우편 마차', '형기리 무곡' 등을 들려준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Love Blossom', '당연한 것들'도 선사하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뮤지컬 '그리스'의 넘버를 댄스팀 '빛고을 댄서스'와 함께 선보인다. 전석 1만원. 문의 062-415-5203.

한편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연 진행 여부는 변동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8일 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공연하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회원들

광주시향 '별, Stars' 시립발레단 'Voice of Spring'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광주에서도 연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가운데 광주시향예술단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공연이 잇따라 취소됐다.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었던 관객들은 공연 진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광주시향교향악단의 '별, Stars'를 볼 수 없게 됐다. 이날 공연에는 첼리스트 한재민이 협연자로 올라 무대를 꾸밀 예정이었지만 공연이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자아냈다.

광주시향은 오는 4월13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2 교향악축제 참여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연주자와 관객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단원은 정부 지침대로 자가격리 후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립발레단도 오는 11-12일(오후 3시·오후 7시30분) 총 네 차례 관객과 만날 예정이었던 'Voice of Spring' 공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박경숙 신임 예술감독의 첫 정기공연으로 기대를 모았다. 시립발레단 측은 오는 4월 'Voice of Spring'을 다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24-25일 북구청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발레 갈라 콘서트 'Voice of Spring'은 예정대로 열리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우크라이나 작가가 쓴 전쟁의 비극

미하일 불가코프 '불가코프 중단편집'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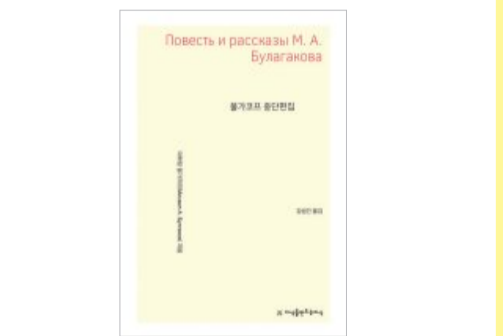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전쟁의 비극이 책으로 출간돼 눈길을 끈다.

미하일 불가코프(1891-1940)의 국내 미발표 중단편을 모은 '불가코프 중단편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은 작가가 직접 겪은 100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담고 있다. 1세기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이며,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두 나라의 전쟁과 배경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100년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주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에 편입됐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유럽에서는 접경지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영토가 넓다.

작가 미하일 불가코프는 20세기 가장 주목받는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 중 한 명이다. 수도 키예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다. 키예프 의과대학 시절 징병돼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이후 그는 우크라이나 내전에 휘말려 또다시 징병되며 전쟁의 포화를 온몸으로 겪었다.

이번 책에 실린 단편은 '3일 밤에', '제가 죽었습니다', '중국인 이야기'는 작가의 참전



경험이 투영된 소설이다. 1차 대전 종전 이후 러시아에 내전 기운이 감돌자 불가코프는 건강상 이유로 퇴역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내전에 발발하고 불가코프는 다시 징병돼 전장으로 끌려간다.

가까스로 탈영을 해 집으로 돌아온 당시의 경험이 '3일 밤에'에 녹아 있다. "지휘관이 무어라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그리고 지휘관 스스로가 만들어 낸 말들이 한데 뒤섞인 기이한 언어였다."

다른 소설 '제가 죽었습니다'는 도시 밖 군인들이 벌인 잔혹한 행위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며, '중국인 이야기'는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해 원치 않는 일을 겪는 개인의 모습을 그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방 손님과 문방사우'

15일~4월 30일 비움박물관

조상의 지혜와 숨결이 담긴 다양한 민속품을 소장하고 있는 비움박물관(광주 이영화)은 계절에 맞춰 다양한 주제 기획전전을 열고 있다.

비움박물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143-1)을 봄 기획전시는 '사랑방 손님과 문방사우'다.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사랑방을 채우던 문방사우를 비롯해 다양한 민예품을 통해 글 읽는 소리와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사랑방 정신을 재조명한다.

사랑방은 따뜻한 인정을 서늘한 가르침으로 채워진 공간으로, 선조들의 성숙한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다. 글을 읽고 학문을 배우는 곳이자, 오고가는 사람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곳이기도 했다.

사랑방에 놓인 문방사우(文房四友)는 문인들이 서재에서 쓰는 붓(筆), 먹(墨), 종이(紙), 베풀(硯)을 말한다. 이번 전시에는 책상, 책꽂이, 독서대, 책, 필통, 고비, 편지꽂이, 연적, 연상, 주판 등 약 120여점이 나왔다.

이영화 비움박물관장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도리를



비움박물관에 전시된 다양한 붓.

일깨워주던 사랑방 문화를 전시하게 돼 의미있다"며 "선조들의 간결하고 절제되고 성숙한 삶의 태도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박물관 1층에서 열리며 개관일인 15일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5월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문의 062-222-66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방 손님과 문방사우'전에서 만나는 베풀과 연적.

고전부터 현대까지...황예진 피아노 독주회

18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황예진 독주회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황 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쇼팽, 모차르트, 리버만 등 고전부터 낭만, 현대 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곡가의 음악을 들려준다.

첫 곡은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 드릴게요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이다. 모차르트가 파리에 머물 당시 접했던 민요를 바탕으로 작곡한 작품으로 우리에게는 '반짝 반짝 작은별'이라는 곡으로 친숙하다.

브람스의 '7개의 판타지 작품 116'은 4곡의 카프리치오와 3곡의 인터메조로 구성된 작품으로 편안한 느낌을 준다. 또 낭만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쇼팽의 '베토벤 작품번호 60', 리스트의 '발라드 2번 B단조'를 들려준다. 마지막 곡은 현대음악 작곡가 리버만의 대표작 '가고일(Gargoyles)'이다.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황예진은 베



피아니스트 황예진

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독일 테트몰트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황 씨는 개인 연주회 뿐 아니라 실내악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코로나 팬데믹 이후, 100권 이상 구매 독자 늘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더 많이 읽고,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국민 독서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교보문고에서 100권 이상을 구매한 독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17.9%가 신장했으며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9.5%가 신장했다.

이들의 구매 권수는 늘어난 독자 수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0권 이상 구매 독자의 인당 구매 권수는 전년 대비 2019년 21.8%, 2020년 19.8%, 2021년 16.1%로 늘어났다. 책을 많이 읽는 독자들은 더 많은 수의 책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책의 특성상 구매는 독서와 연결되므로 독서율로 봐도 무방하다. 가족 단위로 책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1년에 책 100권, 1주일에 책 2권 가량을 읽는 독자들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1년에 100권 이상 구매 독자들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구매 독자와 비교해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고 연령층은 다소 높았다. 전체 구매 독자 비중은 20대가 29%로 가장 많고 30대가 26.1%, 40대가 23.8% 순이었다. 100권 이상 구매 독자들은 40대가 39.7%, 30대가 25.5%, 50대가 17.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구매하는 책들의 주요 분야는 자기계발, 인문, 소설, 경제경영, 학습서, 아동 등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